

“모험인재, 대학의 대표 브랜드로”

전북대, 교육 특성화 우수 '대학대상' 수상 비교과 교육 강조한 차별화 된 교육 인정받아

전북대학교가 한국대학신문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대학대상에서 교육 특성화 우수대학 대상을 받았다. 정성석 대외협력부총장은 18일 서울 클럽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상을 받았다.

전북대는 실력과 함께 문제 해결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모험인재'를 이 대학만의 인재 브랜드로 삼아 비교과 영역의 교육을 강화해왔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대표적 모험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기존 숙식 역할만을 해왔던 생활관을 전일·전인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해 '레지덴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낮에는 학과에서 전공과 교양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기숙사에

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을 키우고 있다.

또한 졸업까지 일정기간 다른 나라나 특정 지역에서 생활하며 현지 언어뿐 아니라 문화나 생활방식까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게 하는 '오프캠퍼스(Off Campu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글로벌 감각뿐 아니라 타문화 포용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길러주고 있다.

특히 2018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전북대는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719만 원으로 국립대 법인 서울대를 제외한 거점국립대 중 두 번째로 학생 교육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학이다.

정성석 대외협력부총장은 "모험인재를 대학의 대표 인재 브랜드로 만들



전북대학교가 한국대학신문 창간 30주년을 기념해 선정한 대학대상에서 교육 특성화 우수대학 대상을 받았다.

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교육 특성화 우수성이 인정받은 것 같이 기쁘다"며 "모험인재 양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내실화를 통해 전북대가 학생 교육 특성화에서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중·고교생 중국문화축제 개최

글로벌 마인드 향상 기대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제3회 전라북도 중·고등학생 중국문화 축제를 운영했다.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선착순 35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국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골든벨 방식의 퀴즈대회를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얼굴에 손을 안대고 가

면을 바꾸는 변검 체험, 중국 전통 의상 차파오 입기, 월병과 밀키트 만들기 등 10여개의 부스가 마련돼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며 중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로 3회를 맞는 전북 중·고등학생 중국문화 축제를 통해 학생들이 한중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4회 JJ-Star 창업공모전에 참가한 수상자를 단체사진.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성료... 유교문화 탐색하는 시간 가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과 인문과학융합연구소(소장 이용욱)는 지난 18일, 전주대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 1부에서는 '근현대 유학자의 사상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AI기술을 이

용하여 전북지역 유학자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동아시아적 의미로 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건중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자 문화권에서 유학의 의미와 현재적 의

미'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박은숙 중국 산둥대 교수의 '개화기 소설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 마쓰카와 마사노부 일본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의 '일본 근세의 유교 의례와 그 현대적 계승', 팜티응옥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의 '한국-베트남의 경어법을 통해 본 문화 비교 연구' 등 각 나라의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JJ-Star 창업공모전' 성료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육성의 장으로 자리 잡아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지난 19일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제4회 JJ-Star 창업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JJ-Star 창업공모전은 머릿속에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하지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트렌드 변화에 맞춰 창업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장으로 자리 잡게 됐다.

대학생, 일반인, 예비 창업가 등 다양한 직업의 참가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특히, 40% 이상의 참가자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우수작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등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대상은 이정은 예비창업자가 '빅데이터 기반 영유아용품 성분 정보제공 및 제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잇(Mooit)'이라는 창업 아이템으로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상과 부상으로 상금 300만원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전주대학교 총장상과 200만원이,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전주대 창업지원단장상과 각각 100만원, 50만원이 수여됐다.

대상을 수상한 이정은(예비 창업가) 씨는 "모두잇(Mooit)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아용품 성분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발하게 됐다"라며,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주대 창업지원단은 창업공모전 뿐만 아니라 중·고교 창업교육, 창업인재 전형 선발, 대학생 창업 강좌, 일반인 창업 강좌, 창업캠프 등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창업자별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 중점 교수, 창업전문 매니저들이 예비 창업자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박희준 교수, 농림식품과학기술대상 수상 영예

불에 타지 않는 목재 개발·상용화

전북대학교 박희준 교수(생활대 주거환경학과)가 2018 농림식품과학기술대상(장관상) 받았다.

이 상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박 교수는 수용성 난연제 처리 기술을 통해 불에 타지 않는 방염·난연 목재 제조 기술을 개발, 이를 기업에 기술이전 해 상용화에도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은성 기자



이 기술은 대표적 목질재료인 합판에 박 교수가 자체 개발한 기능성 수지를 빠르고 균일하게 주입해 불에 강한 난연 성능을 향상시키고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성을 높일 수 있다. 온도가 습도의 영향을 줄이는 목재의 치수 안정성 개선에도 크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에 제품이 생산돼 시중에 공급되면서 중소기업 매출 증대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박희준 교수는 "불에 타지 않는 목재 제조 기술의 경쟁력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유해한 건축 마감재를 대체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성장 산업 발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TaLK 신규 운영학교 10곳 추가 선정

농어촌·소외지역·소규모 학교에 영어교육 기회 제공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 TaLK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신규 학교 10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재외동포 및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대학생 등을 영어 교육 봉사장학생으로 선발·초청해, 한국의 대학생들과 짝을 이뤄 농어촌·소규모 학교의 방과후 수업과 정규 수업에서 영어를 가르치고(Teach), 한국문화체험, 한국어 학습 등을 통해 한국을 배우도록 하는(Learn) 과정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군산 선유도초, 익산 흥왕초 등 10개교를 최종 확정했다.

TaLK 원어민 장학생이 배치된 학

교는 각 학교당 1명, 주당 15시간 수업을 하게 되며 내국인 장학생은 각 학교당 1명, 주당 9시간 수업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50명의 TaLK 원어민 장학생과 국내대학 장학생이 배치되어 초등학교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엔 신규 선정된 학교에 10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TaLK 원어민 장학생을 농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 계속 배치하여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수업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인 영어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반디불 농·특산물 서울로 갑니다!

해발 400~800m 연평균 11.3℃
안전한 먹거리! 반딧불이가 배웁니다!

농·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기간 : 2018. 11. 2(금) ~ 11. 7(수)

장소 : 농협 하나로마트 서울 양재점 (창동,고양,성남)

mu u 무주군 무주반딧불 농 특산물 홍보 & 판매행사 추진위원회 Tel:(063)320-2841~2